

학교 · 청소년시설 연계 · 협력 강화

도교육청, 여가부와 협약
새만금캠버리 개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 어디서나 청소년이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날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현숙 장관과 서거석 교육감을 포함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의 성공적 개최 지원 △학교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활동경험 확대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불어 △학교·청소년시설 간 협력을 통한 위기청소년 예방 및 보호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과존 및 정서행동문제 치유를 위한 연계협력 △교육(지일)창·학교·청소년 시설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23일 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협약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서거석 교육감을 포함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전라북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던 군 단위 지역의 위기사건발생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상담, 고위험군 심리검사, 외상후 스트레스 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또 전세계 청소년의 교류증진을 위한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영생활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김현숙 장관은 "교육현장에서 학교-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여성가족부와 의 협약으로 청소년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면서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어디서나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교와 청소년시설 연계·협력 강화 협약은 충남·부산·경남교육청에 이은 네 번째다.



'재난 대응 실천과 같이'
지진·화재 대피훈련
전주교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3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및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과 실험실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으로, 지진 시 실내 및 옥외 대피뿐 아니라 화재 사고에 대응 안전관제 부서와 자위소방대가 긴급 조치 및 초기 진압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어 지진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대피 훈련으로 계단과 비상구 등 대피경로를 파악하고 대학과 주변 인근의 임시구조시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전주교대 자위소방대 부대장 이석구 총무처장은 "교직원 50여 명이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참여했으며, 훈련을 통해 소속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모의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재난대응 훈련이 지진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커피 찌꺼기 재활용 통한 축산농가 악취 저감

전주대, 전북광역자활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 체결... 자원순환 체계 구축 기대

전주대학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22일 예술관에서 경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 이반농장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덕진지역자활센터가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의제 공모에 제안한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통한 축산농가 악취 저감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의제 실행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에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커피 찌꺼기 활용 실험 및 연구결과 자료 공유 △관여와 및 사업화 지원과 홍보 △기관연계를 통한 커피 찌꺼기 수거 △축산공간 제공 등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축산농가의 냄새 저감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커피 찌꺼기와 우분 재활용 및 사업화 기반 마련을



전주대학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22일 예술관에서 경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 이반농장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한 의제 실행 추진단 구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동승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 주제 간

긴밀한 연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커피 찌꺼기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화 모델을 창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통합내년 구체화"

서 교육감, 완주군의회 찾아
의원들과 교육 현안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2일 완주군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미옥 완주교육장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통학과 소규모학교 통합, 삼봉지구 학교 신설,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순덕 의원은 "현재 동상초등학교와 운주초등학교가 농촌유학 협력학교로 운영 중인데, 다른 학교의 참여도 필요하다"면서 "농촌유학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장미옥 의원은 "완주는 봉서초등학교와 같은 과밀학교와 학생 수가 10명도 안 되는 과소학교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며 "학교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완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스쿨버스를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2일 완주군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이수 의원은 "과밀과 과소가 복합해 있다 보니 일률적인 정책은 통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규모학교 통합 추진 △학부모회의의 소통 △완주 삼봉지구 학교 신설 △농촌유학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서 교육감은 "지자체와 협력해 농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교육 주체, 학교가 합의한 경우에만 통합을 추진하려 한

다"면서 "통합은 내년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교육감은 "학부모회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완주 삼봉지구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앞서 서 교육감은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미옥)을 찾아 학부모 7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정은성 기자

공존 · 역사 공감대 확장

전주대, 고교생 대상 'JJ 웹 콘텐츠 공모전'
숏폼 · 컷툰 · 숏 스토리 등 내달 말까지 신청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한국어문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함께 'JJ 웹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 사회의 현주소에 맞는 공존·한류·역사라는 주제를 통해 공감대를 확장하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생으로,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숏폼 컷툰 숏 스토리 3개 부문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상은 대상 1팀(100만 원)·최우수상 3팀(각 50만 원)·우수상 6팀(각 20만 원)·장려상 10팀(각 10만 원)으로, 이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또 수상 작품들은 추후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



인문학센터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는 전주대학교 HK+연구단 홈페이지(www.jiackr/ik/)에서 공모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jondara@naver.com)로 작품과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HK+연구단 홈페이지, 센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3일 5층 회의실에서 '제2기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

도교육청, 분야별 · 기능별 전문성 고려 추천 통해 20명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5층 회의실에서 '제2기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민감시단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기능별 ·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추천을 통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도민감시단은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등이 있다. 임기는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예산감시체계 전문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도민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우크라이나 학생들에 용기를"

전주 근영중, 현지 학교와 온라인 국제협동수업 실시
"평화 위한 마음물기대... 앞으로도 교류수업 이어갈 것"

전주 근영중학교는 9개월 넘게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학교와 국제교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3일 오후 4층 수업나눔실에서 진행된 국제협동수업은 근영중 학생들과 27번학교 학생 50명이 화상으로 만나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중앙부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27번학교는 수도 키이우에서 열차로 2시간 거리로, 전교생이 200명, 교사가 115명인 대규모 학교다.

두 학교의 인연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위원회의 교류사업으로 시작했다. 특히 27번학교 책임자 알렉세이 국장과 근영중 조은경 수석교사간 노력의 결과다.

현재 우크라이나 27번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주 근영중학교 학생들과 우크라이나 27번학교 학생들의 공동수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번 공동수업 자체로도 이미 훌륭하지만 상호 이해를 넘어 의미있는 교류를 경험하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길 바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경 교사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곧 찾아오리라는 믿음과 희망,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수업을 기획했다"면서 "오늘 수업이 평화를 위한 마음물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류수업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